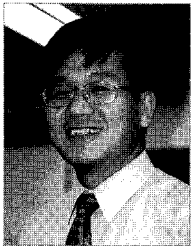


2009년 계육업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

사료 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에 따른 유의사항



장 금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일손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농장에서 가축에게 어쩔 수 없이 약제를 투여해야 할 때 가장 편리한 것은 배합사료 내에 약제가 들어 있어서 그냥 해당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약제들이 사료에 첨가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단지 사료에 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배합했을 때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약효가 제대로 또한 경제적으로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수적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러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개발된 약제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다시 기술검토 등을 거쳐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합사료 내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항생제가 2005년 4월까지 54종이었다.

이것은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한 항생제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이나 콘트롤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항생제 사용 제한 이슈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내부 기생충 구제제와 항생제 사용문제와

는 전혀 별도로 취급해야 할 가금 콕시듐 예방제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과거에는 축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항생제가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이 섭취했을 때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서 인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과 과도한 약제의 사용으로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되어 동물들의 질병 치료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항생제 사용을 규제하는 이야기의 배경은 축산에서의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생긴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인체에서 문제되는 세균들에게 그 내성을 전파하여 그 항생제가 인체의 질병 치료에 효용이 없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 또한 모든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축산동물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한 항생제를 사용 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 규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항생제 사용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비전문가들에 의하여 비과학적 방법으로 현장성이 결여된 결정을 해 버려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약제 첨가 사료의 개념이나 이에 따른 세밀한 규정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양축농가는 불편함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다.

사료 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에 따른 유의사항

어찌되었든 현재 법적으로는 2005년 5월에 54종의 배합사료용 항생제가 25종으로 줄어들었고, 인체 의료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약제 성분이라서 2009년 1월자로 사용 금지된 7종의 항생제를 제외하면 18종의 항생제만이 배합사료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닭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4종인데, 8종의 항콕시딕제를 제외하면 6종 밖에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양계에서는 배합사료 내에 첨가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콕시딕제를 제외하고는) 없다. 즉, 질병 예방은 각각의 농장에서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1. 질병 예방 프로그램, 클리닝 프로그램을 농장 자체 내에서 잘 작성하여 실행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2. 질병이 발생되어 치료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데, 이때 질병 진단 및 치료 약제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
3. 백신 접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감보로병 등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그 밖에 청소 및 소독, 영양관리, 온·습도 관리 등 전반적 사양관리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5.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시설을 개선

해야 한다.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모자람을 다른 노력으로 보상하기에 너무나 힘이 든다. 장기적 전망으로 시설을 적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로 인해 각 양계농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콘트롤, 치료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더 확실하게 책임지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질병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정확히 이해하여 어떻게 예방을 하고 발병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료제도 제대로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약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약들은 서로 다르며 질병에 따라 그 사용법이 또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약제사용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모든 일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처리하고 계사 내의 닭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 닭들을 자주 만나면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 줄 것이다. 